

## 광주 신혼부부들 '1억 빛' 안고 출발

### 광주·전남 신혼부부 통계

광주지역 신혼부부 가정의 가계 빛이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고, 빛을 진 신혼부부가 증가하면서 부채 보유 비율도 전국 2위로 올라섰다. 가파르게 오른 집값으로 '신혼집' 마련을 위한 대출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광주지역 신혼부부들의 연 소득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집값은 오르는 등 경제적인 부담 탓에 결혼마저 포기하는 'N포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신혼부부의 금융권 대출잔액 중앙값은 광주 1억27만원, 전남 7883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서로 늘어놓았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여기에는 제3금융권 대출, 사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수치는 1년 전보다 광주는 527만원(5.5%), 전남은 1133만원(16.9%) 증가한 금액이다.

광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은 6400만원(2016년)→7967만원(2017년)→9500만원(2018년) 등 매년 1500만원 이상 증가하다가 급기야 1억원을 넘긴 것이다.

전남 대출금도 5098만원(2016년)→6000만원(2017년)→6700만원(2018년)→7833만원

### 집값 치솟아 대출금 잔액 중앙값

광주 1억27만원·전남 7883만원

소득도 전국평균에 크게 못미쳐

절반은 유주택자 '양극화' 심각

(2019년) 매년 증가 추세다.

지역 신혼부부들은 1억·2억원 미만 대출잔액 비중이 가장 많았는데, 광주 31.2%·전남 24.1% 비중으로 나타났다.

지역 신혼부부 '대다수'는 금융권 대출을 받았는데, 광주 대출잔액 보유비율은 2018년 전국 5위에서 2019년 2위로 3계단이나 경종 뛰었다.

2019년 말 기준 대출잔액 보유 부부 비율은 광주 87.7%·전남 83.5%로, 광주는 세종(88.3%)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전남은 14번째였다.

최근 4년 동안(2016~2019년) 전국 평균 대출 보유 비율은 82.2%에서 85.5%로 3.3%포인트 오른 반면, 광주는 5.9%포인트 오르며 평균 증가 폭을 크게 웃돌았다.

광주·전남지역 신혼부부 절반(3만5128쌍)은 무

주택자였는데, 광주에서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 53.9%는 1억5000만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었다.

광주지역 주택자산 가액별 신혼부부 수를 보면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가 7147쌍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했다. 6000만 초과·1억5000만 이하가 39.8%로 뒤를 이었고 ▲3억 초과·6억 이하 11.9% ▲6000만 이하 6.2% ▲6억 초과 1.8%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6000만 초과·1억5000만 이하가 42.0%(8079쌍)으로 가장 많았고, 1억5000만원 초과 주택 보유 비중은 35.5%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5쌍 중 4쌍은 빚더미에 올랐지만 연 소득은 전국 평균 이하였다.

신혼부부 평균 소득은 광주 4969만원·전남 4439만원으로, 전국 평균 5380만원보다 각각 411만원, 941만원 모자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는 9번째·전남 15번째를 나타냈다.

지역 신혼부부 평균 소득은 지난 4년 새 광주 21.2%(868만원)·전남 21.0%(769만원) 증가했다.

한편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수는 같은 기간 광주 3만3878쌍·전남 3만8275쌍 등 7만 2153쌍으로, 전년보다 3679쌍(-4.9%) 감소하는 등 통계를 낸 2015년 이후 4년 연속 감소 추세다. 2015년에 비해서는 무려 1만4026쌍(-16.3%) 줄어들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알립니다

##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김정운



유현준



양정무



김대식



강신주

### 고수들의 명 강연...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9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9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 여러분께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은 지역 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 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21년 3월~2021년 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호선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월 19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63

光州日報社

## 지역 정치권, 5·18묘지 참배로 새해 시작

### "올해는 발표명령 등 진상규명"

광주 지역 정치권이 5·18묘지 참배 등으로 새해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4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5·18 구묘역)을 참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만 참석했다. 이번 참배는 국립 5·18민주묘지(신묘역)가 아닌 구묘역에서 진행됐다. '오월 초심'을 지키고 '촛불 시민'과의 약속을 다짐한다는 의미를 담아 5·18민주화운동 열사들이 묻힌 구묘역에서 참배했다고 시당은 설명했다.

송갑석(광주 서구갑) 시당위원장은 "5·18 40주년인 지난해에는 전두환 유죄 인정, 5·18 관련 3법의 국회 통과 등 5·18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을 뒀다"며 "올해는 발표 명령자와 민간인 학살 등 국가 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촛불 혁명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5일부터 8일까지 광주와 전남 목포·영암, 순천·광양 등 주요 도시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민생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노승일 시당위원장 등 당직자, 기초의원들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시무식을 열었다. 노승일 위원장은 "작년은 코로나19 여파, 서민경제 몰락, 부동산·집값 폭등 등으로 모든 국민이 힘들었다"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 현안부터 하나씩 챙겨 대안을 발굴하고 현실 정책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을 참배한 뒤 박관현, 이한열 열사 등의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앞선 지난 3일 조정관 시당위원장, 김옥자 수석부위원장, 박복률 사무처장, 김주연 총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들은 참배를 끝내고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용주의 정당을 추구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4가지 다짐'을 발표

했다. 조정관 위원장은 "올해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의 압승을 통해 혁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정부를 견제해야 할 야권의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 발 뺀 이낙연, 사면논란 이틀만에 봉합 ▶3면

새해 새 설계 - 목포시·여주시 ▶11·13면

굿모닝 예방 - 신 중년의 인생 3막 ▶18·19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년엔  
다시 활짝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더 큰 꿈을 꾸는  
밝은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SAMSUNG